

## 1주택 9억 초과분부터 과세

당정, 종부세 개편안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 9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근 당정간 실무협의를 수 차례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과 한나라당의 안, 현재 결정을 동시에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평균으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보유자 추가공제의 경우 8~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종부세 위원회 결의문과 보조금은 25일 오전 열리는 정부기원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장승우)는 24일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본계획안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구체적 내용은 25일 오전 열리는 정부기원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위원장은 이날 특별 회의에서 “박람회 기간 중 해양생물을 전시할

아쿠아리움에 민자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재정 보조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직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측에서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지난 9월25일 발표한 기본계획시안에 없었던 상징탑

과 같은 상징조형물을 한국관 전면 수변 광장에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적 조형건설물을 설치하고 주제관의 위치도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다른 박람회 시설의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 지원특위 측에 협조를 부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지원특위…상징 조형물 설치 등 계획안 일부 변경



박광태 광주시장이 24일 오전 접견실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5+2 광역경제권 사업'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남훈 지식경제부 대변인, 임 차관, 박 시장, 강신기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 美 연수취업 지방대에 60% 할당

정부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지방대에 60%를 할당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학생을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에서 4대 6의 비율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졸업 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을 대상으로 하는 WEST 프로그램은 18개 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영어연수(5개 월)와 인턴취업(12개월), 관공(1개

월)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상반기(3월 시작)에 1천명, 하반기(9월 시작)에 1천500명 등 내년에 총 2천5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 양질의 인턴자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발인원은 유동적”이라며 “조만간 인원을 확정해 모집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비연수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선발인원의 20%를 할당, 연수자금을 정부가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日만정

- 김종우



만나서 밥 먹어 본지가 까마득...

## 박광태 시장 “광역경제권 재조정 해달라” 촉구

### 임채민 차관, 조선업 등 지역 협안 청와대 전달

광주시가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 호남 소외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현 경제권의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산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4일 광주시를 방문한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호남권에서 ‘호남권’은 2개 권역(호남권, 영남을 2개 권역(대경권·동남권)으로 나눴는데 현재도 경제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같은 권역 설정은 호남을 고립화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선도 산업

에 대해서는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역 3개 시도가 합의만

내놓지 않고 지자체에 먼저 선도

산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광역경제권 재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박 시장은 “광역경제권 계획은 호남을 1개 권역(호남권), 영남을 2개 권역(대경권·동남권)으로 나눴는데 현재도 경제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같은 권역 설정은 호남을 고립화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선도 산업에 대해서는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역 3개 시도가 합의만 하면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반영

하겠다”면서 “5+2 경제권과 관련, 지역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임 차관과의 면담에서 “호남권역인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현재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어 계획서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차관은 또 이날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 담회에서 참석자들이 5+2 광역경제권의 지역 불균형 지적과 함께,

지역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자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심각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고 접수 안내

▶ 취업·논술고사 대비 맞춤학습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 악필→명필 1대1 개인지도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 바른글씨 교육원 T. 062)269-0112  
010-2642-5559

11월 27일(목)

▶ e-조은산악회 부안 내변산 11월 27일(목) 7시30분 월드컵 경기장(롯데마트정문) 출발(문예회관 후문 경유)

※ 다음카페:e-조은산악회

T. 010-9420-0090

▶ 광주일주산악회 정관 11월 27일(목) 7시 운천저수지 옆 재중약국(7시30분 진월동 구 해태마트, 8시 광주역, 8시 10분 두암동 은병원 경유)

※ 다음카페:광주일주산악회

T. 010-3608-4267, 011-634-2044

▶ 광주여성대학 11월 27일(목) 7시 운천저수지 옆 재중약국(7시30분 진월동 구 해태마트, 8시 광주역, 8시 10분 두암동 은병원 경유)

※ 다음카페:광주여성대학

T. 010-629-2678, 010-2613-9566

▶ e-조은산악회 해남 두륜산 12월 1일(월)

※ 다음카페:e-조은산악회

T. 010-9452-0090

▶ 가고파산악회 12월 1일(월)

※ 다음카페:가고파산악회

T. 010-605-5034

▶ 광주여성대학 12월 1일(월)

※ 다음카페:광주여성대학

T. 010-9420-0090

▶ 광주여성대학 12월 1일(월)

※ 다음카페:광주여성대학